

주민에게 회향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기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장찰이다. 더구나 올해 초조대장경 조성 1천년을 맞아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해인사는 화엄종찰로도 손꼽히는 곳이다. 선종의 수행가풍을 대표하며 계승하고 있고, 경허 스님이 해방 이후 최초로 선원을 개원한 곳이다. 해인사는 그동안 성철, 해암 스님을 비롯해 법전 스님 등 조계종 종정 스님들이 주석하면서 선을 널리 알려왔다.

해인사는 민족문화추진회 결의대회에서 8대 실천강령을 선포하는 등 수행과 실천행위를 위한 노력을 다져왔다. 6월 14일 해인사에서 열린 대회에는 스님들과 신도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해인사 교구는 결사정신이 부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며 매년 10월 해인사에서만 수재하는 무생계의 6대 서원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해인사는 해인사교구 8대 강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해인사는 8대 강령 선포를 위해 결의대회를 앞두고 '5대 결사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해인사에서 선포한 8대강령은 ▷수행자로서 정제성과 수행여건을 마련하여 일체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옹양정진하겠다 ▷자비심과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대중공동의 행복을 찾아 기꺼이 '나'를 던지겠다 ▷나태와 사형, 자살 등 모든 인위적 살생을 반대하고, 종교자별 적극 감시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고양시키겠다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불교생명사상 현대화하겠다 ▷복지와 봉사의 삶을 적극

흔들림없는 전통의 수행도량 다양한 대중 참여 프로그램 추진

인재불사 위한 '해인사 조주원' 설립 수행 복지관 '해인사 소리원' 개관

실현하겠다 ▷다양한 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조화롭게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인사 아트프로젝트의 회향이다.

또한 해인사는 인제 육성과 편안한 수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초에는 고시텔을 매입해 '해인사 조주원'을 마련했다. 이곳에는 76명이 입주해 있으며 수익금은 조주원에서 공부하는 임주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해인사는 인재 불사가 한국 불교의 미래는 물론, 미래까지 기약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는 생각으로 '해인사 조주원' 발전을 위해 노력중이다.

해인사는 또 가야산 정기를 머금은 고품격 콘도미니엄식 복지시설 '해인사 소리원'을 개관했다. 해인사 소리원 내부에는 스님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한 개인 독립주거 공간, 의료시설,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가야산 인근 해발 860m의 고지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이와 더불어 해인사는 지역 주민에게 회향하는 사찰을 지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법보장찰 해인사는 가풍을 유지하면서 지역과 함께 거듭나기 위해 노력중이다.

에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해인사는 2003년 12월 종무원과 지역 불자들을 중심으로 '사랑과 희망' 봉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합천, 거창 지역의 복지관 및 경로당, 한센병 요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봉사를 통한 부처님 뜻을 전하고 있다.

해인사 단오행사는 고려시대 회랑 조사 때부터 전해져오는 행사로 예전에는 단오날 산중 스님들이 그네를 뛰기도 했다. 이때 그네를 뛰는 것은 매화산(現 남산 제일봉)의 화기를 밀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네를 뛸 뒀에는 매화산에 소금단지를 묻는 의식을 갖기도 했다.

해인사는 이런 단오 행사의 전통을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체육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사찰과 지

역민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험학교에서는 주민들에게 인경 체험과 킷, 한글 및 한국화 등을 가르친다.

올해로 6회 째를 맞은 해인만다라 축제는 5월 28일 해인사 경내에서 전국 유치원 및 초·중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축제는 전국 학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글과 그림 솜씨를 선보이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글짓기 부분에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5대 결사가 시제로 제시됐다.

주지 선각 스님은 "5대 결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해인만다라 축제를 통해 자연과 생명, 소중한 이웃을 자비로 살필 수 있는 어린이 잔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대장경의 가치 세계와 함께 나눈다

해인사를 이야기하면서 대장경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올해는 초조대장경 조성 1천년을 맞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이 개최된다.

9월 23일~11월 6일 45일간 해인사와 합천군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살아있는 천년의 지혜'를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장경 천년관 지식문명관 정신문화관 세계교류관 등 총 7개의 전시관을 중심으로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관람객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개막식이 열리는 9월 23일에는 '살아있는 지혜의 숲이 열린다'를 테마로 김홍이 타악공연, 팔만대장경 이운행렬, 개막식 세레모니 등이 주행사장에서 펼쳐진다. 축전 기간 중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화엄경> 속 선재동자의 구도 과정을 그린 뮤지컬도 펼쳐진다.

보리수 공연장에서 펼쳐질 문화행사에서는 전 세계 지혜 이야기를 주제로 한 해외 문화공연 '대장경 문화 실크로드'가 선보인다. 행사 기간 내내 펼쳐질 체험마당에서는 대장경 문구와 문양들의 목판서각 및 인경을 체험하는 '마음의 행간을 새기다'가 예정돼 있다. 장경판전 모형 조립 및 체험이 가능한 '천년의 누각을 세우다', 전통 등 전시 및 연등 만들기 체험 '마음의 등불을 켜다', 바람과 기원의 연 날리기 체험 '기원의 연을 날리다' 등 천년의 마당에서 계속된다. 이 밖에도 대장경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할 국제학술 심포지엄과 해인아트 프로젝트 등 대장경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여줄 문화 행사도 진행된다.



천년축전 대국인 결의대회.

7개 전시관별 다양한 프로그램 이운행렬 재현 행사 관심 집중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단풍 절경을 자랑하는 가야산 홍류동 계곡의 '해인사 소리길'은 계곡의 정취와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홍류동 계곡길은 옛 선조들이 걸었던 길로 지금은 없어지고 표식만 남은 무릉교를 지나 해인사까지 이어지는 6km의 구간이다. 해인사는 총림대중들에게 계곡길 이름을 공모, 백여 개의 이름 중 '해인사 소리길'을 최종 선정했다.

대장경 천년문화축전 조직위는 대장경의 가치와 이번 축전을 알리기 위해 이운행렬을 6월 18~20일 서울 일대에서 재현했다. 이운행렬에 참가한 1000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은 모조 대장경판을 머리, 등, 지게 등에 지고 서울 조계사를 출발해 인사동길, 종로2가, 청계2가를 지나 청계천로, 광통교까지 1.5km를 행진했다. 웅장한 모습으로 대장경을 이운하는 행렬의 모습은 참가자들은 물론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대장경 조성의 의미를 가슴 속에 새기게 했다.

박기범 기자

국제선문화센터로 수행가풍 강화할 터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단박에 깨달아 삶과 죽음의 문제를 능히 알아버리는 것, 이것이 돈오돈수입니다. 해인사의 가풍은 오랫동안 돈오돈수를 지키고 실천해왔습니다. 한국불교의 전통과 원칙을 살리고 바로세우며 실천해 가는 것이 해인총림입니다."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해인사가 앞으로로도 가풍을 지키며 간소한 수행과 승가교육 중심의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각 스님은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현재도 매월 둘째주 토·일요일이면 열중

스님의 지도하에 주말참선과 철야정진을 실시하고 있다. 해인사는 앞으로 화강원 건물에 일반 불자와 외국인들이 한국 간화선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제선문화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제선문화센터는 상설 시민선원으로 운영돼 승가와 재가가 함께 정진하는 수행가풍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해인아트프로젝트에도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와 해인사의 세계화를 위한 구상이 반영돼 있다. 이 행사는 세계 최초로 한국의 명상과 선을 주제로 한 예술 프로그램이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특별행사로 개최되는 해인아트프로젝트는 회화 조각 건축 행위예술 등 특정 종교

및 예술 장르를 뛰어넘는 종합축제를 지향한다. 해인사는 이 행사가 21세기 문화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그 어떤 교구보다 바쁜 것으로 보이는 해인사는 항상 불교계 안팎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인사는 총림의 규모나 살림살이가 방대하고 여러 문종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있다. 선각 스님은 이런 해인사의 특성상 대중 모두가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을 위한 총림이지 소수를 위한 총림은 아닙니다. 승가의 대중 삶이 화합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총림을 아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인사는 크게 변창할 것입니다."

박기범 기자

■해인사는...

화엄십찰의 하나로 한국 최초의 총림

해인사는 신라시대 화엄종의 정신적 기반 확충을 위해 건립된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로 선원, 강원, 율원이 함께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총림이다

해인사의 이름은 화엄종의 근본 경전인 <화엄경> 속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비롯됐다. 해인사는 해동 화엄종의 조조 의상대사(義湘大師: 625~702)의 법손인 순우 화상과 그 제자인 이정 화상이 신라 예장왕 3년(802년 10월 16일)에 지금의 대적광전 자리에 창건했다. 이후 화엄종인 신라시대를 거쳐, 해인사를 중심으로 화랑대사를 위시해 균여, 의천과 같은 빼어난 학승들을 배출해왔다.

창건 이후 해인사 중창에 관한 기록은 최치원의 <신라 가야산 해인사 결계장기(結界場記)>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

따르면 해인사는 창건 당시 터가 험하고 규모가 작았는데 100여년 후 효공왕 1년(897년) 가을 다시 중창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고려 초기 <균여전>에 따르면 해인사의 회랑 대사가 신라말 왕권을 도와 견훤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준다. 그 대가로 전지(田地) 500결을 시사하고 옛 사우(寺宇)를 중신(重新)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고려 태조 때 해인사는 창건 이후 회랑대사에 의해 확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해인사는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다. 태조 때 고려대장경판이 해인사에 봉안 됐고, 장경판이 해인사로 이운(移運)되면서 법보장찰로 유명해진다.

해인사는 국보 제32호 고려대장경판, 국제 제52호 장경판전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2011년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최고의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배우이란 머리론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불교대학 29년의 역사와 그 바탕으로 20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대덕스님들과 석학들께서 펼치는 불자 지성인들의 수행과 진리탐구의 요람인 동산불교대학에서 끝없는 신심과 열정으로 크나큰 감동과 완화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불교학과 (2년과정)	1년차 교과목	2년차 교과목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이해, 포교방법론	무진장대중사(본대학학장, 주명철교수(동명대학원), 정영선(승가대), 김형준교수(동산대), 종석스님(승가대), 보각스님(승가대), 최종석교수(금강대), 김호규교수(동국대), 윤영수교수(동국대), 활안스님(동산대)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빈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최봉수교수(대원대), 김형준교수(동산대), 묘주스님(동국대), 정영조교수(금강대), 차차선교수(동명대학원), 김상현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불교학과 180명 : 목요일반(오후 2시), 토요일반(오후 6시), 통산반 : 8월 접수중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학사과정	차의 미학, 재단사, 육체행태, 테이빙(태형),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총서, 처형사	박희준교수	9월 6일(매주-화) 오후 2시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기술, 겨울, 봄, 여름)	정선스님	9월 7일(매주-수)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법, 사물,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9월 8일(매주-목) 오전 10시30분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통산반 각 20명)	천자문역해(2), 한문해석 교정(1), (2), 한문전수경, 한문어법강, 천자문역해(1)	이윤숙교수	9월 8일(매주-목) 오후 7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3년과정/정규반·통산반 각 30명)	불교와 세계종교	주명철교수	9월 5일(매주-월) 오후 7시	
	팔천승반야경(2)	김형준교수	9월 6일(매주-화) 오후 7시	
	초기불교 수증론(4)	최봉수교수	9월 8일(매주-목) 오후 5시	
불교다도학과(2년과정 20명)	다부, 대관다론, 다산전, 동다송, 다경	김진숙교수	9월 20일(매주-화)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1년과정 20명)	상주권공(이론, 실습) 강좌, 한글의식기본, 예불의식, 왕생의식 실습	민춘스님, 문종순박사	9월 3일(매주-토) 오후 2시	
	법배의식반(2년과정 20명)	법배 실기(지장불공, 관음시사, 상용영정, 천수바라, 요장바라, 나비춤 등)	인각스님	9월 7일(매주-수) 오후 3시

원서문의 · 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장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창,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향선축진,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반(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8월 중

◆개강일시 : 2011년 8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약간명)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염판 사진 3매

*본원은 초중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